

제1차 한·중·일 표준 협력회의 결과보고

김홍원 · TTA 표준화본부 국제협력부장

디지털경제의 형성과 정보화사회의 진전이라는 21세기 핵심 트렌드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한 기술과 시장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으로서 지역화, 블록화 추세는 지역간 장벽형성이라는 반대 디지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또한 통합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현 추세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필요가 있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한·중·일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앞으로 통신부문에서의 협력과 통합은 미국, 유럽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한·중·일이 이루는 동북아시아는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이 취약한 상태이고 국제기구나 지역기구는 한·중·일 특유의 시장 및 산업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플랫폼

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 간에 고유한 표준 및 시험인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인식하고 협의할 수 있는 준정부차원의 협력의 플랫폼과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인하여 지난 6월 26일 TTA 제1회의실에서 중국 CCSA, 일본 ARIB 및 TTC의 사무총장 등 대표단 9명과 TTA 사무총장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1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에서는 각 표준기관별 현황 소개, 주요 표준 활동현황 소개 및 토의, 향후 한·중·일 표준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한·중·일 표준협력회의 개최 하루전인 6월 25일에는





제29차 TTA 표준총회에 중국 및 일본 표준 기관 대표단을 초청하여 참관토록 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1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의 전체 개요와 주요 토의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회의 개요

- 회의명
 - 국문 : 제1차 한·중·일 표준협력 회의
 - 영문 : The 1st CJK Standard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 일시 : 2002년 6월 26일(수)
- 장소 : TTA 제1회의실
- 참석자 : 각 표준 기관 대표 총 16명

■ TTC(일본, 정보통신기술위원회)

- Mr. Nobuhiro HORISAKI(사무총장), Mr. Shigeo FUKASE(기획부장), Mr. Kazunori MATSUO(국제부장)

■ ARIB(일본, 전파산업협회)

- Mr. Masayoshi WAKAO(사무총장), Mr. Yoshihide Ishida(이동통신부장)

■ CCSA(중국, 중국통신표준조직)

- Mr. Zhou Baoxin(Director of CCSA), Mr. Zhan Datian(Secretary of CCSA)
- Ms. Dai Xiaohui(Vice Manag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II)
- Mr. Wan Yi(Chairman of CDMA Working Group, CWT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임주환 사무총장, 장명국 표준화본부장, 최진성 박사(PG01 의장, LG전자), 안재영 선임(TC03 부의장, ETRI), 김장경 센터장, 김홍원 부장
- 이상훈 서기관(정보통신부)

2. 회의 목적

- 한·중·일 3개국에서의 정보통신시장의 발달에 따른 표준 관련 이슈들을 모니터하고 관련 정보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응 및 정부정책 형성에 기여
- 3·4세대 이동통신 및 차세대 정보통신망(NGN) 등 주요 표준화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대규모시장을 구성하는 한·중·일 3국의

기업간 및 정부간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및 지역표준기구의 작업을 선도하고 원활하게 함.

- 한·중·일에서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장비의 제공이 이용자에게 유리하며 산업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개발, 시험인증 등에 있어 기업간, 시장간, 정부간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비공식 정책포럼을 형성

3. 회의 주요내용

- 표준 기관별 현황 및 표준화 활동 소개
 - TTC, ARIB, CCSA 및 TTA는 각 표준 기관의 표준총회, 조직, 회원, 예산 등 표준 기관 현황을 소개하고 표준화 절차, 중장기 표준화계획, 전자적 작업방법 등 최근 표준화 활동현황을 소개하였고 TTA는 시험인증 활동을, TTC는 표준 포럼 등에 대한 최근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소개하였다. 특히 중국 신식산업부(MII)는 최근 중국 신식산업부의 통신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CCSA(중국통신표준화협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배경, 설립 추진 현황(금년 말 설립예정) 및 조직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 주요 표준화 활동현황 소개 및 토의
 - 한·중·일 표준 협력이 요구되는 주요 표준화분야, 즉 차세대정보통신망(NGN) 및 차세대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에 대해 각 표준 기관의 표준 활동계획을 소개하고 동 표준화활동에 대한 한·중·일간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

- 향후 활동계획 제안 및 토의
 - 각 표준화기관은 TTA가 제안·발표한 향후 한·중·일 표준 협력활동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표준기관은 한·중·일 표준 기관간 긴밀한 상호협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TTA가 제안한 한·중·일 표준 협력의 기본개념에 동의하였으나 체계적 한·중·일 표준 협력 시스템 수립을 위해 세부 제안내용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각 표준 기관은 향후 한·중·일 표준 협력활동 제안에 대한 각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회신키로 하였다.


- 차기 회의
 - 제2차 한·중·일 표준협력회의는 일본 TTC 및 ARIB 합동 초청으로 2002년 11월 중순 일본 동경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 연락책임자 지명 및 후속조치
 - 금번 회의결과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과 차기회의에 대한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각 표준 기관의 연락책임자, Mr. Kazunori Matsuo (TTC), Mr. Sasaki (ARIB), Mr. Zhan (CCSA), Mr. Hong Won Kim (TTA)를 지명하였다.

4. 맺음말

전술한 바와 같이 동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대표단들을 제29차 TTA 표준총회에 초청하여 참관토록 하였는데, 이제까지는 TTA와 외국 표준 기관간 표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TTA가 관련 외국 표준 기관의 총회에 초청을 받아 참관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외국대표단의 TTA 표준

총회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중·일 표준 협력회의를 통해 표준 기관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의 틀을 확립하였다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실질적인 상호방문 및 정기적 만남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와 우애를 쌓아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한·중·일 표준 협력은 한·중·일 표준 기관들

만의 협력이 아닌 한·중·일 관련 산·학·연·관의 총체적인 협력이 되어야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한·중·일간 협력의 기반 위에 산·학·연·관의 활발한 참여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카드 국제포럼 한국이 앞장서 만든다

스마트카드 분야의 국제 협의체가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될 전망이다. 한국전자지불포럼(의장 정인식)은 6월 18일 국가간 스마트카드 시장교류 활성화를 위해 범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국제포럼을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최근 중국·일본·싱가포르·호주 등 주요 국가의 스마트카드 관련 기관(협회)을 확인, 6월부터 실무접촉에 착수했다. 전자지불포럼은 우선 중국 신식산업부 산하 스마트카드특별위원회로부터 참가의향을 받고 이달 중 현지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일본·싱가포르·호주 등지의 관계기관 과도 일대일 개별협상을 추진, 단계적으로 참여국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참여국 해당기관을 확정짓고 공식적인 활동계획을 밝힌 뒤 3월 창립한다는 목표다.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우리나라를 정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스마트카드 시장 공유 및 활성화의 기폭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카드 사업은 다른 전자지불 분야에 비해 기술표준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데다, 보안·금융 등 시장교류 범위가 넓어 민간 협의체 결성으로 얻게 될 실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지불포럼 조영후 사무국장은 “이달부터 아태지역 주요국의 민간단체와 단계적으로 실무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일단 주요국을 대상으로 출발한 뒤 참여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지불포럼은 순수 민간단체 형식으로 국제협의체를 결성하되,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부 등 정부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불수단은 물론 여권·항공권 등 스마트카드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분야에 정책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